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나의 대학생활은 길었지만 청춘은 없었다



최영선_ 서울대 사회학과 77학번,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 간사, 한겨레신문 기자·교육사업단장·경영기획실장, 한겨레플러스 저문역(현)

최근 몇 년 사이 내가 다니는 신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

하는 공채 후배들을 보면서 그들이 겪어야 하는 취업전쟁이 안쓰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자유분방함과 재능, 적극적인 자기표현에 부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내게도 저들처럼 발랄하고 밝았던 시절이 있었을까? 내 기억에는 그런 시절이 없었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타도와 사회혁명에 헌신하겠다는 신념과 오기로 충만하긴 했지만 밝고 긍정적인 자세로 나를 찾아 개발하는 여유는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때가 자유, 특히 언론자유에 대한 우리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철저한 탄압이 이뤄지던 시대였고 그 이전 중·고등학교 시절도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진행되던 격변기였던 것과 관련이 깊을 것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69년 13대조 이래 뿌리내리고 살아온 경남 합천에서 서울로 이사 왔다. 조상님들이 터잡고 살기 시작한지 일추 잡아도 400년은 넘을 터여서 우리 가족사에서 보면 실로 역사적인 대탈출을 한 셈이었다. 당시 100호가 넘는 우리 마을은 80% 이상이 같은 성을 가진 일가 친인척위주의 동족부락이었고 우리 집은 마을에서 비교적 부유한

편이었지만 그것은 워낙 빈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산골에서의 이야기일 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영세 자작농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내가 서울로 전학와 처음으로 한 일이 국민교육헌장(1968년 12월 5일 발표) 외우기였다. 중학교 무시험 배정이 나보다 한 해 앞 선배들에서부터 시작됐고, 고등학교 시험은 내 한 해 후배들 때부터 없어졌다. 서울에서는 내가 고등학교를 시험보고 들어간 마지막 세대이므로 중, 고등학교가 시험제에서 ‘뽕뽕이로 바뀌는 과도기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중3 때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그 해 가을 ‘유신’이라는 이름 아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유신헌법이 채택됐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바로 코앞에 두고 남북공동성명 3대원칙과 의미를 외우고, 그동안 공부했던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는 대신 유신헌법 관련 내용을 새로 외우느라 모두들 투덜거리고 욕을 했다. 내가 다닌 중학교가 당시 동대문구 제기동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캠퍼스 안에 있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여서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에 계엄군이 진주했다. ‘10월유신’ 또는 ‘유신헌법’ 하면 서울대 사대 운동장에 출동해 있던 계엄군의 트럭과 공수부대원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도 그 경험 때문일 것이다.

내가 사회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반 친구들과 가운데 비판적인 사회의식을 가진 친구 둘이 반장과 부반장을 맡았는데 그 뒤 고려대에 진학해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홍순우(윤이상 평화재단 사무차장)와 윤석환(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이 그들이다. 1학기 중반 즈음으로 기억되는데 이 친구들 주도로 우리 반에서 돈을 모아, 기자들의 자유언론수호선언 때문에 정권으로부터 광고탄압을 받고 있던 동아일보에 격려광고를 내기도 했다. ‘양정고등학교 2학년2반 학우 일동’ 이름으로 조그맣게 격려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가 나간 뒤 담임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던 모양이다. 담임선생님이 어느 날 종례시간에 ‘야, 이 놈들이! 그냥 양정고 2학년 뜻있는 학우 일동 이라고 하면 될 것을 ‘양정고 2학년2반’ 이라고 적어 내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며 화를 냈으나 그걸로 더이상 문제삼지는 않았다.

그 무렵부터 나는 함석헌 선생이 발행하던 <씨알의 소리>를 자주 사서 읽었다. 장준하 선

생의 의문의 죽음에 관한 <씨알의 소리>의 기사를 읽으며 울분을 느꼈던 것도 그 때다. 그렇지만 대학입시가 가장 큰 과제였던 터라 독서서클에 가입하거나 친구들과 사회문제에 대해 같이 토론하거나 한 적은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에 서울대 사범대학에 합격해 석달쯤 다니다 그만둔 것은, 애초 사대를 내가 좋아해서 진학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제도교육의 혜택이라고 초등학교 밖에 받지 못한 아버지는 척추장애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당신의 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자식들을 대학까지는 공부시켜야겠다는 의지 하나로 물려받은 전답과 가옥 모두를 우리 형제 교육에 쏟아 부으셨다.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효도 방법으로 '서울대 합격'을 선물하겠다는 생각에서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대학을 고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또 사대는 다른 단과대학보다 등록금이 싼 만큼 졸업 후 몇년 동안 의무적으로 교사를 해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1977년 다시 시험을 쳐 사회대학으로 옮겨 입학했다. 우리 세대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일이겠지만 1학년 여름방학 때 사서 읽은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는 내게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고2 때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맹호부대 귀국환영 행렬에 동원돼, 비내리는 이현동 마포대로변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전환시대의 논리>에 들어 있는 베트남 전쟁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새로운 세상의 발견과 같은 것이었다. 그동안 내가 자라면서 배워온 교육내용과 상식을 모두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했으면 했다.

그러던 차에, 77년 9월 대성학원 동창인 이계성(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부터 국제경제연구회(이하 국경)이라는 이념서클에서 주1회 세미나를 통해 공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활동하는 학회에 가입했다. 당시 대학본부에 등록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던 여러 교양서클과는 달리 비공개적으로 활동하던 여러 이념서클들을 일반적으로 '학회'라고 통칭했다.

당시 같은 학회에서 세미나를 하던 친구들이 이계성 외에 백형신(아시아나항공 상해지점

장), 박정호(경성대 교수), 민중기(부장판사), 구본민(부장검사) 등인데 백형신의 자취방이 우리들이 모여 놓고 공부하던 아지트였다. 선배나 동기의 자취방 아니면 중국집 골방에 모여 하던 '세미나'라는 이름의 모임은 당시 이념서클에서 학년 별로 정해진 책이나 논문을 같이 읽고 모여 읽은 내용과 소감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말이 '세미나'이지 독서와 공부의 양이 많지 않았던 나에게서는 세미나를 지도하는 선배한테 일방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어 듣는 기회였다. 그 뒤 이어지는 뒷풀이, 즉 술자리에서는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었다.

나의 대학 동기들은 다른 학번들보다 일찍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을 간 친구들이 많았다. 내가 학회에 가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10월 7일 사회학과 심포지엄을 학교 쪽이 저지한 데 대한 항의농성 사건과 11월 11일 교내시위 및 도서관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많은 동기들이 구속되거나 학교에서 제명(학칙상 제명은 복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점이 제적과 달랐다)됐다. 이어 2학년 때인 이듬해 광화문 대학연합시위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몇명이 또 구속됐다. 이렇게 대학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학교를 떠난 동기들 가운데 언뜻 떠오르는 친구들만 꼽아봐도 진재학(전 한겨레신문 기자), 윤석인(한국신문제작(주)의 한겨레신문사쪽 파견 이사) 정광필(이우학교 교장), 유대기(전인교육연대 부대표), 황광우(민주노동당 중앙정치연수원장), 여균동(영화감독), 오세중(변리사), 조성오(변호사) 등으로 이들은 우리 학번 동기들 가운데 가장 걸출한 인물들이었다.

국경에서도 여러 선배들이 희생됐다. 사회학과 심포지엄 사건으로 우리 학번의 세미나 지도를 하던 3학년 김용관(경제학과, 현 성균관대 교수) 형이 사회학과 심포지엄사건으로 구속됐고, 4학년이던 김경택(국사학과, 현 온샘미디어 대표) 형은 도서관 점거농성사건 주동자의 한 명으로 구속됐다. 또 김정진(역사교육과, 현 교사) 형은 도서관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가 무기정학을 받았다. 가까운 선배와 동기들의 이런 행로를 보면서 1학년인 우리들도 앞으로의 대학생활과 인생 행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선배들을 보면서 학회 활동을 계속할 경우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감옥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피부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성격이 그런 편이지만 다소 게으르고 낙천적이어서 문제가 눈앞에 닥칠 때까

지는 최종적인 결정을 미뤄놓는 편이어서 세상 고민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인상을 우그리고 다니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일부러 졸업을 하지 않기 위해 애쓸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졸업과 출세를 위해 현실을 회피하거나 학회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정도로 고민을 정리했다.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위에 적극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현실이 한편으로 두렵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 피해간다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기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대학을 다닌 축에 속한다. 박정희 정권이 종말을 향해 치닫던 79년과 80년 서울의 봄과 광주민중항쟁 등을 거쳐 오면서 같이 활동하던 동기들 대다수가 감옥으로 가거나 군대로 강제로 끌려갔고 나머지 동기들은 졸업 이후를 준비하느라 학내 활동에서 한발 물러서 4학년 2학기까지 신변의 큰 변동을 겪지 않고 살아 남았다.

물론 2학년 때인 78년 가을 유신철폐 시위에 참여했다가 한 학기 유기정학을 당했고, 80년에는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몇차례 만들어 서울 시내 고등학교와 양평동 봉천동 등 공장지대와 판자촌 일대에 뿌린 일이 예상치 않은 일로 드러나 남산 서울시경대공분실로 끌려가 물고문을 받기도 했지만 한 달여 만에 훈방되는 정도의 위기는 있었다. 하지만 광주민중항쟁 이후 감옥으로 가거나 군대로 끌려가지 않은 동기들은 많지 않았다.

내가 이런 대학생활의 행로를 밟게 된 것은 학회 구성원의 한 사람에서 서울대 전체의 학생운동을 조정하는 지휘조직의 일원으로 선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조직은 80년 12월 11일 남명수가 주동이 되어 벌인 시위와 그 때 뿌린 '반파쇼 학우투쟁선언' 유인물을 계기로, 치안본부(현 경찰청에 해당)가 서울대 학생운동의 배후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그 실체와 윤곽이 외부적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이 조직을 '연합 언더조직', 이 사건 전체를 '무림(霧林)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이 언더조직이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 우리 학번으로 이어져 왔는지 나는 지금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당시에는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금기 사항이었고 그 뒤에도 굳이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74년 민청학련사건과 긴급조치 제9호 선포에 대한 사실상의 무효선언을 한 5·22사건으로 서울대 내 학생운동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학교에서 잘리고 감옥으로 가거나 군대로 끌려감으로써 학교에서 쫓겨난 뒤 살아남은 73, 74학번의 몇몇 선배들이 각 학회를 중심으로 남아 있는 역량을 다시 추스르고 조직화를 시도한 것으로 짐작만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역시 짐작뿐이다.

그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법과 활동내용을 순전히 내 경험과 기억에 의존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언더조직은 학생운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인문대, 사회대, 법과대, 사범대의 이념서클들 가운데 일정한 회원수를 확보하고 회원들의 의식과 활동 역량을 인정받은 학회의 대표자 1인씩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다시 단과대학별로 나뉘어 전체 언더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활동력과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을 포함시켜 10명 안팎으로 단과대 언더그룹을 만들어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당시 서울대 문과계열의 단과대학은 인문대, 사회대, 사범대, 법과대, 경영대 등 5개였다. 그러나 인문, 사회, 교육계열로 신입생을 뽑은 뒤 교양과정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가면서 전공학과를 결정하는 제도였던 터라 법대와 경영대에는 사회의식을 가졌거나 학생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다. 때문에 단과대별 언더그룹은 인문, 사회, 사범 3개 대학에만 구성됐다.

각 학회의 3학년 대표가 1년 후배들을 평가해 2학년 2학기 들어갈 무렵 2학년 대표를 선정해 2학년 연합 언더조직을 결성하고, 3학년 언더 지도부는 2학년 조직을 지도할 3인(인문, 사회, 사범대)만 남기고 공식적으로 해산한다.

또 모든 구성원은 언제 어떤 일로 수사당국에 체포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관계를 맺는 인물 외에는 구성원에 대해 알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전경은 물론 사복경찰 수십 명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상주하면서 시위나 유인물 살포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때인 만큼 '조직을 지키기 위한 보안유지가 우리와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 보안을 위해 우리는 언더 내부의 일은 일체 비밀로 하고, 어떤 일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며, 관련 전화번호도 적어놓지 않고 모두 암기하는 걸 생활화했다. 물론 용공조작 등을 피

하기 위해 조직의 명칭이나 규약 등도 만들지 않았고, 언더 구성원들끼리는 학교 내 공개된 장소에서 서로 만나는 일조차 피했다. 모임의 장소는 학교 외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급하게 교내에서 협의하거나 연락할 일이 있을 경우 미리 전화를 해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고 만난 뒤에도 각자 다른 길로 헤어졌다. 또 학교 밖에서의 모임장소는 주로 방이 있는 중국집일 수밖에 없었는데, 서울대생들이 많이 사는(하숙 또는 자취방이 모여 있는) 지역은 피했으며 학교에서 버스 한번으로 가는 지역은 모임장소에서 무조건 제외했다. 아무리 좋은 모임장소를 찾아내더라도 한 장소를 한달에 두번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내부 원칙이었다.

주요한 활동으로 각 학회의 세미나 커리큘럼과 농촌활동 시기와 방향을 공유하는 일상활동 외에 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팀을 짜 지문 등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강의실이나 화장실 등에 유신독재정권의 불법성과 타도를 주장하는 낙서나 벽보를 붙이는 특별한 훈련을 했다.

그리고 3, 4학년들의 학내 시위계획이 잡히면 각 학회에서 보안유지가 가능한 핵심인력을 선발해 시위 주동을 맡은 선배들이 조기에 잡히지 않고 일반 학생대중이 모여들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도 했다. 물론 초기 주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 회원들은 학생대중들이 모이고 사복경찰과 전경이 몰려오면 재빨리 현장을 떠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역량이 손실되지 않도록 했다.

또 한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각 학회의 1학년 의식화 교육을 위한 공통의 교재를 만든 일이다. 각 학회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세미나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각 학회별로 세미나의 커리큘럼이 다르고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격차가 생겨나는 현실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필요에서 79년 신입생용 기초교재로 만든 것이 <현실인식의 기초>라는 책자였다.

우리 현대사와 정치경제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리영희 교수, 박현채 교수 등의 논문 20편 정도를 한권으로 묶은 것으로 서울대 내 이념서클들의 인식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다. 이 교재는 이원주 형 등 76학번들이 만들어 서울대 이념서

클들 모두에 공급했다. 그 이듬해인 80학번들을 위한 교재는 <현실인식의 기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79년에 나온 논문 몇 편을 추가해 만든 <현실인식>이라는 책자였다. <현실인식>의 제작과 배포는 내가 담당했는데 인문대 사회대 등 관악 캠퍼스는 물론 수원에 있던 농대에 이르기까지 서울대의 모든 이념서클에 공급했다.

78, 79년 박정희가 10.26사건으로 피살되기까지 엄혹한 긴급조치9호 상황 속에서도 서울대가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역량을 튼튼하게 이어갈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조직적 활동이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이 언더지도부는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을 맞으면서 총학생회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학생운동의 중심이 옮겨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별, 부문별 투쟁 역량과 준비수준의 차이 등을 감안해 서울대가 너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총학생회의 활동방향을 조정, 지원하고 내부 조직을 통해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복학한 선배그룹과의 이견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다 그해 12월 '무림사건' 으로 모두 11명이 구속됐고 구속을 면한 구성원들은 79학번까지 모조리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1981년 3월께 논산훈련소로 끌려감으로써 조직의 막을 내렸다.

내가 이 조직의 구성원이 된 것은 78년 여름 농촌활동이 끝난 뒤인 8월 하순이었던 것 같다. 국경의 직속 선배인 김창호(인문대 철학과, 현 국정홍보처장) 형의 연락을 받고 간 곳은 북한강변 대성리 유원지였는데 이 자리에 77학번 언더 구성원으로 뽑힌 친구들이 모두 집합한 것이다. 이 자리에 나온 3학년 지도부는 김창호 형, 이원주(사대 국어교육과) 형과 정인용(사회대 사회학과) 형 세 사람이었고, 2학년은 나 외에 후진국경제학회의 현무환(독문학과, 현 웅진미디어 대표이사), 농촌경제학회 김지석(철학과, 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경제철학회 윤종범(불문학과), 역사철학회 김명인(국문과, 현 인하대 교수), 홍사단 아카데미 김성식(경제학과, 현 경기도 정무부지사), 사회철학회 성두현(경제학과), 농촌법학회 심재철(사대 영어교육과,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경제법학회 김규장(법학과, 현 부장판사), 사회복지학회 이태화(경영학과), 사회과학연구회 이홍동(정치학과, 현 한겨레신문사 부장급 현장기

자) 등 11명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후 내 대학생활은 학비와 어려운 집안의 생활비 일부를 벌기 위한 고교생 과외와 국경 조직관리, 77학번 전체 언더그룹 사회대 언더그룹 활동 등으로 꽉 채워졌다. 그래서 전공과목 수업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다. 내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공부해야 할 여러 과제도 쌓여 있고, 시간을 쪼개 읽어야 할 책들도 산적해 있는데 별 '영양가'도 없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는 게 내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수강신청도 출석 체크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거나 리포트만 내면 학점을 너그럽게 주는 교수님들의 강의 위주로 했다. 그러나 전공필수 과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 결과 거의 대부분 D학점을 면할 수 없었다. 내가 게으르고 불성실한 탓이 컸겠지만 수강신청을 해놓고 수업은 한번도 들어가지 않은 강의도 적지 않았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나는 대학생 신분이었지만, 전공도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사회학과를 졸업했지만 사회학이 뭔지 공부한 게 없어 지금도 누가 “전공이 뭐냐?”고 물으면 “전공은 없고, 사회학과를 졸업했다”고 대답한다. 지금도 나를 대로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고도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결코 자랑일 수 없는 우리 젊은 날의 초상이 아니었나 싶다.

78년 1년은 당시 4학년이던 75학번 선배들이, 경찰에 의해 조기에 진압당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시위주동 장소와 기법을 개발해 시위를 주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도왔다. 구속된 그 선배들이 당당한 자세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법정에서 지켜보는 것은 당시 신입생 후배들을 교육하는 주요한 방법의 하나였다. 내가 데모 때문에 한 학기 유기정학을 당한 것도 78년 9월이었다. 시위대의 일원으로 주동자이던 선배(양민호 형으로 기억)를 호위하면서 도서관 앞길을 지나다 사복경찰에 잡혀 격투를 벌이게 됐는데 당시 곁에 있던 백형신의 도움을 받아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경찰의 카메라에 잡혔던 모양이다.

79년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체제가 흔들리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해 마

침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대통령이 피살되는 것으로 막을 내린 해였다. 유신체제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후가 78년 12월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였다. 정확한 의석수와 득표율을 기억할 수 없지만 야당인 신민당이 크게 약진해 여당인 공화당 의석수에 근접했으며, 득표율에서는 공화당을 앞질렀다. 이런 기세 속에서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선명야당의 기치를 든 김영삼이 중도통합을 내세운 이철승을 누르고 총재로 복귀한 것이 79년 5월이었다. 79년 1학기 서울대에 교내시위가 없이 지나갔다. 그 때문에 후배들의 비난과 불만이 당시 4학년이던 76학번들에게 모아졌고, 2학기 들어서는 76학번들의 시위가 줄을 이었다. YH무역 노조원들의 신민당사 점거농성사건으로 촉발된 여야의 대립이 파국으로 에스컬레이트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 무렵 서울대는 데모를 주동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문제학생'을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시켜 군대에 강제 입대시키는 제도(지도휴학제)를 학칙에 도입했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77학번이었다. 김명인, 유종일, 장훈열, 이계성, 황재홍 등이 바로 그들인데 이들은 군 입대를 거부하고 데모를 주동하고 감옥으로 갔다.

긴급조치9호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박정희 정권은 김영삼 신민당총재를 직무정지 가처분 시김은 물론 국회의원직 제명까지 감행하는 무리수를 두었고 그런 만큼 대학생들의 반유신 학생 데모는 서울의 여러 대학은 물론 지방으로까지 확산됐다. 그해 10월 부산대에서 시작된 가두시위가 마침내 부마항쟁으로 확대되자 정권은 이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희가 측근인 김재규의 손에 피살된 10.26사건은 그 무리수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말이었다고 할 수 있다.

79년 2학기에 들어가면서 4학년인 76학번들이 자신의 진로와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각 학회와 연합 언더조직의 운영 주도권이 3학년인 77학번의 손으로 넘어왔다. 이런 상황에 맞춰 여름방학 때부터 2학기초까지 언더 조직을 개편하였다. 76학번 내부의 전반적인 교통정리를 하면서 기획, 조정 작업을 하던 이원주 형은 계속 언더그룹의 지도부에 남은 반면 김창호, 정인용 형은 손을 뗐고 77학번 언더그룹도 78학번 언더그룹을 선발하는 역할을 끝으로, 인문대 사회대 사대 각 1인씩 3인의 지도부만 남기고 해산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 3인은 인문대 현무환, 사회대 최영선, 사범대 심재철이었다. 그러나 77학번 언더그룹 11명은 3인의 지도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묻지도 않았고, 우리들이 언더그룹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조차도 머릿속에서 지우기로 결의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기억은 지워 없애는 것이 좋다는 걸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78학번 연합 언더조직을 결성한 것이 9월 5일 강촌유원지에서였다. 인문대에서는 한홍구(국사학과, 현 성공회대 교수), 황효진(동양사학과, 현 공인회계사), 양재원(서양사학과), 김석영(국사학과) 사회대에서는 유시민(경제학과,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허현중(정치학과), 노용진(경제학과,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용기(국제경제학과, 현 일본 대학교수), 김준(사회학과, 현 국회도서관), 박기상(경제, 사망)이, 그리고 사범대에서는 김용인 등 11명이 그 구성원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전체 모임은 우리 3인이 함께 또는 돌아가며 참여했는데 주로 현무환과 내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된다. 각 단과대학별로 인문대에서 현무환, 사회대에서 내가 전체 언더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들까지 망라하는 단과대 언더를 만들어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78학번 사회대 언더그룹의 구성원으로는 연합 언더그룹의 유시민 등 6명 외에 유현오(사회학과, 현 SK커뮤니케이션 사장), 이병훈(사회학과, 현 중앙대 교수), 이호균(사회학과, 현 출판인), 강병일(경제, 현 삼천리그룹 전무), 김진국(정치학과, 현 중앙일보 기자) 등이 포함돼 있었다.

10월 19일 김명인, 이계성 등 동기들이 지도휴학제를 거부하면서 데모를 벌이고 감옥으로 가는 과정을 뒷바라지하면서 나에게도 결단의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피부로 실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과정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박정희의 피살이었다. 죽을 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을 것 같던 독재자가 그의 부하의 총에 죽은 것이 매우 통쾌하면서도 민주화운동세력의 힘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내부의 알력과 갈등으로 독재자가 죽은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불안했다.

불가피하게 ‘우리는 박정희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이 달라질 수 있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을 것인지’, ‘민주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해 12월 긴급조치9호가 해제되면서, 감옥에서 나온 선배와 친구들을 환영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겨울방학이 시작됐고, 12·12사건이 일어났다. 비상계엄의 통제 속에서 우리 언론이 12·12사건의 진상을 보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신문의 보도를 통해 그것이 군부내 하극상 쿠데타라는 사실을 알았고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총학생회를 부활하고, 총학생회라는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공개적인 투쟁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걸 인식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방학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각 과회장(각 학과의 3학년 대표)들로 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위원장은 경제학과 과회장이던 박문식이 맡았고, 국사학과 과회장이던 유기홍(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총무를 맡았다.

역사철학회 회원으로 인문대 언더의 구성원이던 유기홍을 연결고리로, 학생회 부활작업이 앞으로 전개될 정치상황에 적합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은 80년 2월 중순경이었다. 장소는 남태령 고개 옆 남현동에 있던 현무환의 후경 후배인 기춘(정치학과 79학번, 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의 자취방이었다.

이원주 형과 현무환, 최영선 세 사람이 며칠 밤을 새우며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총학생회의 구조와 기구, 회장 선출방식 등을 담은 총학생회 회칙 초안을 만들었다. 우리가 만든 회칙의 대부분이 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에서 수용됐다. 그런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논란이 된 것은 총학생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지 않고 간선제로 규정한 것과, 학회와 각 단과대학학보사 등 학생운동의 주요 세력들이 총학생회에 많이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술언론위원회를 두기로 한 두 대목이었다.

총학생회장을 학생 직선으로 뽑는 것이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맞다는 것이 당시 박문식을 비롯한 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 일부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와 현무환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80년 전개될 정치사회 상황에 비춰 서울대 총학생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막중할 것이 분명한 만큼, 준비된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려면 대의원대회에서 간접선거로 뽑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학술언론위원회의 경우 박문식은 학회가 학생회를 장악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며 반대했다. 우리는 솔직히 학회 회원들이 공식조직인 학생회에 대거 침투하는 것

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논란은 박문식, 현무환, 나 3인이 만나 직접 토론하고 답판하는 과정을 거쳐 총학생회장 선출은 간선제로, 학술언론위원회는 이름을 학생활동위원회로 바꾸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총학생회 부활준비가 끝나가면서 다음 과제로 다가온 것이 총학생회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였다. 이원주 형과 현무환, 그리고 나 세 사람이 논의한 끝에 총학생회장 후보로 떠올린 사람이 심재철과 이홍동이였다. 현무환과 내가 이들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교를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겠다고 하며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있던 심재철이 회장을 맡기로 했고 이홍동은 학생활동위원장을 맡는 걸로 결론을 맺었다. 이에 따라 77학번 3인 의 언더 지도부내에서 사대 심재철의 자리는 인문대인 김명인이 대신하게 됐다. 4.19 20주년 선언문을 비롯해 총학생회 명의로 나갈 여러 문서의 초안작업을 위해서도 김명인의 필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가 구성된 이후 활동은 긴급조치9호 아래서보다 월등히 바빠졌고 상황도 복잡했다. 민청학련사건 등으로 학교를 쫓겨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던 수백명의 선배들이 한꺼번에 학교에 복학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경험과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복학생 선배들과 우리들의 계획이 부딪히는 일이 종종 빚어지기도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4월 중순께 복학생 대표와 재학생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때 재학생 대표로 심재철과 이홍동 외에 김명인, 박성현, 유기홍 등 5인이 참석하였고 이원주 형과 현무환, 나는 언더 상태를 유지코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을 거친 뒤 '서울의 봄'에 대한 평가와 2학기 학생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박성현과 나 사이에서 시작된 논란(뒤에 이것이 무림-학림논쟁) 과정에서, 나와 현무환의 이름이 학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12월 11일 남명수, 남충희, 김회경, 윤형기 4명이 주동이 돼 시위를 벌이면서 뿌린 '반파쇼 학우투쟁선언'의 작성지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긴급조치9호시대 서울대 학생운동을 이끌어온 언더 조직은 모두 드러나고 말았다.

80년 비상계엄 하에서의 서울대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과 무림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나 판결문에 주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번 문집의 기획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나는 소위 무림-학림논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사회 변혁이라는 공동의 대의를 가진 동지라도 방법이 다르면 적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징역을 사는 2년 동안 그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반성으로 나는 다시는 사회변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곁에서 지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간사나 한겨레신문의 기자라는 직업은 이 원칙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